

# KT 'AI 스피커 케어서비스' 노인 우울감 낮췄다

광주 서구 최초...남구·나주도 도입 전남대 이정화 교수 '효과성' 연구 우울감 63.5%·고독감 65.9% 감소 정서안정·고독사 예방·응급 구조

광주에서 첫 도입된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효과가 입증돼 눈길을 끌고 있다. 2년여 전 광주 서구에 최초로 도입된 KT의 'AI 스피커 기반 케어서비스'가 실제로 이용자의 우울감을 낮추고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KT는 AI 스피커에서 확장해 이달 중 전남지역에 IPTV 케어서비스를 첫 도입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역량을 활용한 케어서비스 시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16일 KT에 따르면 최근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이정화 교수 연구팀은 광주 서구와 KT가 공동으로 추진한 'AI 스피

커 기반 케어서비스'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KT와 광주 서구는 노인 인구비율(23%)과 독거노인 인구비율(34.1%)이 가장 높은 농성1동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AI 스피커 기반 케어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IoT 문 열림 센서와 스마트 스위치 등이 연동된 전용 AI 스피커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케어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AI 스피커는 KT텔레캅, 119 안전신고센터와도 365일 24시간 연동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비상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년8개월간 AI 스피커 케어서비스를 통해 구조된 응급환자의 사례는 22건에 달한다.

이와 같은 응급환자 구조 사례 등 특정 경우 외에도 이용자들이 실제 AI 스피커 케어서비스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있

는지,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전남대 이정화 교수 연구팀은 광주 서구 1, 2차년도 이용자 212명을 전수 조사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병행했다.

AI 스피커 기반 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패턴, 사용빈도가 높은 기능, 만족도 등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80.0%가 건강수준 개선 및 유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 감소 63.5%, 고독감 감소 65.9%, 상대방안감 감소 72.6% 등 실제로 과반수가 정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AI 스피커 기반 케어서비스의 '상호작용'에 주목했다.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통해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제고됐다는 분석이다.

이정화 교수는 "자주 사용하는 AI 스피커 세부 기능은 이용자별 특성에 따라 달

랐지만, 고령이고 저학력일수록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용 정도가 높았으며 이용자가 자녀의 정서적 지지를 적게 인지할수록 일일 안부 확인 기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AI 스피커가 이용자의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돌봄 대상자 발굴에서도 기존 취약계층 외에 가족과 관계망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AI 스피커 기반 케어서비스는 서구를 시작으로 광주 남구, 나주시 등 공급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용층 역시 고령층뿐만 아니라 남구의 경우 장애인, 나주의 경우 치매 취약 계층 등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광주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재형 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돌봄이 제한되던 시기에 AI 스피커를 바탕으로 한 돌봄 체계는 특히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

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됐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케어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집단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유사한 복지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계층에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T는 AI 스피커 케어서비스에서 확장해 IPTV 서비스에 AI 케어서비스를 접목해 이용자가 TV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니TV'를 이달 중 진도군에서 전국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지니TV 외에도 상반기 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AI 케어 서비스인 '지니케어'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며 "AI 케어서비스의 범위를 기존의 안전 중심에서 편의, 건강 등을 포함한 일상 컨시어지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휴사 협업을 계획하고 있는만큼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축산 농가 살리기 '한우' 할인전** 광주신세계는 본관 지하1층 한우코너에서 오는 19일까지 한우 암소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위해 마련됐으며 축산 바이어가 직접 공판장에 참석해 엄선한 고품질 한우 암소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 현대차, 중형트럭 '2023 마이티' 출시

연식변경 모델...신규 사양 추가

현대차는 16일 대표 중형트럭인 마이티의 연식변경 모델 '2023 마이티' (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3 마이티는 적재량 4톤 모델인 에어브레이크에 신규 선택 사양 및 휠베이스 라인업을 추가하고 전 모델에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마이티 에어브레이크 모델은 경사로 발진 보조 기능을 탑재한 ZF 8단 자동변속기가 추가돼 조작 편의성과 차량 응답 및 반응 제어 성능이 강화됐고 차량 내외부 청소소에 필요한 에어건을 연결할 수 있는 에어건 포트 아웃렛이 기본 적용됐다.

특히 중축고상(3400mm), 장축고상(4050mm), 초장축고상(4400mm)으로 구성된 마이티 에어브레이크의 기존 휠베이스 라인업에 단축고상(2950mm)과 극초장축고상(4900mm) 2개의 라인업을 추가했으며 장축고상과 초장축고상 라인업에는 적재할 선택을 가능케 하고 엔트리 트림인 모던 트림을 신설해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곽지혜 기자**

또 마이티 전 모델에 운전석 시트 코일 서스펜션을 기본화해 장시간 운전 피로도를 낮췄으며 운전석 시트 서스펜션 스프링 개수 증가 및 노면 진동 흡수력 강화를 통해 운전석 시트의 승차감도 개선했다.

기존 중간 트림 이상부터 적용됐던 상단 착색 전면 유리 역시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해 운전시 눈부심을 줄이고 작업등 스위치의 위치를 기존 대시보드 중앙에서 운전대 좌측 하단으로 변경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운전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등만 나왔던 기존 안전벨트 경고 기능은 동승석에도 적용하는 동시에 경고음까지 추가해 탑승자 안전을 강화했다.

기존 △디럭스 △슈퍼 △골드로 구성된 모델별 트림 명칭은 승용 차량의 트림과 같이 △모던 △프리미엄 △프레스티지로 변경해 고객들의 이해를 높였다.

## 금호타이어 'ESG위원회' 출범... 지속가능성 강화

정일택 대표이사 위원장 맡아 기업 경영전략 ESG 이슈 통합

금호타이어가 최근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ESG위원회 신설은 사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ESG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ESG경영을 종합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SG위원회는 정일택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송문선 사외이사 및 김진영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ESG위원회는 △ESG경영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 △ESG경영 과제 관리감독 △환경경영·기후변화 대응 △비재무 리스크 관리감독 역할을 담당하며,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로서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전략에 ESG 이슈를 통합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탄소중립 계획 발표, 태양광발전

구축 등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정일택 대표이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ESG경영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젠다로 임직원 모두 ESG경영 내재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22년 기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AA등급, 에코바디스(Ecovadis)실버 메달을 획득했으며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부분에서 매니저먼트 B등급을 획득했다. **곽지혜 기자**

## 기아 오토랜드 광주, 노사 공동 '안전보건 선포식'

10대 안전수칙 해설서 배포 등 '현장서부터 안전 마인드 확립'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16일 2023년 중대재해 ZERO달성 및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노사 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박래석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장과 김민기 기아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이 노사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을 통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 노사는 2023년 안전보건 선포문을 발표하고 직원 및 사내 협력사 인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아 10대 안전수칙을 정하고 수칙 내용을 담은 해설서와 홍보 포스터를 배포해 현업에서의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기아 10대 안전수칙은 △규정 보호구



1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에서 박래석 기아 오토랜드 공장장과 김민기 기아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제공**

지금 및 착용 △안전 방호장치 임의 해제·우회 금지 △안전벨트 착용·규정 속도 준수 △무인공정 임의출입 금지·출입시 작업수칙 준수 △중량물 인양 작업 시 하부출입 금지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승인 후 출입 △전기취급시 전원차단 △지정구역 외 금연 △작업 전 사전 점검·허가제 준수 △위험행위 요소 발견 시 선조치 후 즉시 보고 등으로 현장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들을 차단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관계자는 "노사가 안전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선언해 안전 최우선 원칙을 재확인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안전 선포식을 개최했다"며 "선포식을 기점으로 현장에서부터 안전마인드를 확립해 올해도 중대재해 없는 오토랜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